


아름다움을 생각하다



안용준 중앙대학교 독문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예술학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동 대학원 기독교철학과에서 '현대 개혁주의미학'을 연구하여 철학박사를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미학미술사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 기독교미술과 겸임교수이며 연희동 원천교회 협동목사, 미술 선교단체인 '아트미션(Art Mission)'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아름다움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기독교미학자인 시어벨트(Calvin Seerveld) 교수는 “순수 예술(the fine arts)의 이념이 학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위대한 (유럽의) 미의 이론들이 쇠퇴하면서 위기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가 비례 및 조화로운 배열에 있다고 하는 중심원리 또는 미의 객관성, 합리성, 형이상학적 토대에 공격이 가해졌던 것이다. 미 이론의 위기 이후, 미는 일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들의 어떤 특별한 비례나 배열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론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인식의 혁명적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흥분이나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사물의 재생이거나 형식의 구축 혹은 경험의 표현을 미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흥분이나 충격 등은 일정한 가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들임에도 ‘아름다운’, ‘심미적인’ 등과 같이 가치평가적인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의 많은 화가, 작곡가, 음악가들은 심미적이기 보다는 압도시키고 당황케 하며 노골적으로 충격을 주는 경험들을 산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외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포괄적인 미의 규칙, 표준, 기준, 규범, 법칙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원히 중요한 것 혹은 어떤 한 시대에 의미 있는 것을 논함에 있어, 아름다움과 관련된 자아의 취향, 개인적인 평가 등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 더욱이 아름다움은 심미적인 경험을 환기시키기에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정신적인 산물 등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포괄하는 너그러움 그릇이기 때문이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 아름다움을 들여보자. 인생의 무게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넓게 느낄 수 있다.

역사에서 아름다움을 듣다

아름다움에 관한 인간의 사고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개념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당시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것들을 의미했다. 따라서 미의 개념은 시각이나 청각에 속하는 형상, 색 또는 음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행위, 법률과 도덕, 과학과 진리에 까지 확대되는 넓은 의미였다. 말하자면 아름답다고 간주된 대상들의 특성에 따라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식의 감각적 미나 도덕적 미 또는 지적 미라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가 도덕이나 진리 등의 가치와는 다른 질서의 가치임을 논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의미의 폭이 다르게 통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아테네의 소피스트들은 미를 시각이나 청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정의했다. 이러한 제한된 시각은 경험 주의자들로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미의 정의는 스토아학파에 의해서 보다 확대 적용되었다. 그들은 전체로서의 세계에서 뿐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 즉 개별적인 물체와 생물들에서도 미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리스 미학의 주된 전통과 완전히 일치된 답을 내놓고 미는 척도와 비례에 달려 있다고 선언했다. 이 개념은 정신적인 미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미에도 적용됨으로써 보편적인 미의 이념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플라톤은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관해 언급하는 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물들이 지닌 속성들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우선 그는 이데아론의 전개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은 곧 선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미는 물체의 척도와 비례이다. 아름다운 것은 즐거운 것 중의 하나이며, 알맞은 조화이다. 미는 질서 있는 우주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나,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AD 3세기에 활동한 플로티누스(Plotinus)는 미가 주로 시각이나 청각의 범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감성의 범위를 넘어 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지성이 처세, 행위, 성격, 지적인 추구 이외에도 도덕적인 미가 존재함을 인식 한다고 설명했다.

플로티누스에 의해 확고하게 마련된 아름다움의 미학은 기원후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3-430)에게 전승되었다. 신플라톤주의로 알려진 아름다움의 미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영혼(Psyche)은 정화되어 정신(Nous)의 단계에 다다르고 마침내 모든 것의 근원인 일자(Hen)에 일치할 수 있다는 신플라톤주의의 가르침대로 초월적 아름다움의 세계를 갈망한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74)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에서 사고하고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유비적 간극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에 관한 그의 논리는 높은 수학적 플라톤화 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미학의 세 가지 핵심 원리인 완전성, 조화 그리고 광휘이다. 첫째, 이 원리는 인간의 미학적 삶을 이상화시키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유형에 아름다움의 미학을 적용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이 미학 원리는 동시에 초월적 아름다움의 세계로 향하는 미학 체계를 구성하였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아름다운 시각에서 비롯되었듯이 사물의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에도 아름다움의 미학은 새롭게 조명되었다. 스콜라 미학의 성숙된 체계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동맥경화의 증세가 점차로 생겨났다. 이즈음에 새롭고 희망찬 미학은 부활된 플라톤주의 즉 신플라톤주의였고 이것은 피치노 중심의 피렌체 아카데미에서 열정으로 배워지고 가르쳐졌으며 새로운 측면에서 성찰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미학적 견해에 반영되었고 당대의 예술에 관한 사변적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미의 전통은 20세기에도 계속된다. 네덜란드의 종교 해석학자인 게라르두스 반 데어 레이위(Gerardus van der Leeuw, 1890-1950)는 예술과 종교의 공통점을 특히 기독교적 문맥 안에서 연구하였다. 예술의 창조적 활동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인식은 플라톤적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프랑스의 토마스주의자인 자크 마리땡(Jacques Maritain, 1882-1973)은 1952년 Mellon강연에서 예술적이며 초월적인 미의 신학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시가는 우리를 신비적 특성의 감각으로 일깨워서 존재의 근원으로 이끄는 길로 안내한다. 이 창조적 경험 안의 아름다움은 그 본래적 성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아름다움을 향수할 수 있는 감성적 지식을 가져다준다.

신플라톤주의로 알려진 아름다움의 미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영혼(Psyche)이 정화되어

정신(Nous)의 단계에 이르고 마침내 모든 것의

근원인 일자(Hen)에 일치할 수 있다는 신플라톤주의의 가르침대로 초월적 아름다움의 세계를 갈망했다.

창조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배우다

아름다움의 미학의 특성은 기독교의 전통 내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창조된 세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출발했다는 점에서 위의 경우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창조성의 가시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예술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 반계시의 하나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다.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언제나 현재형으로 실제로 생명 안에 계속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증거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계시록에 다시 나타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계 21:27). 정교하게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의미가 인간의 보편적 믿음 안에서 지속되기를 원하신다.

기독교의 전통은 이러한 성경적 전개를 창조세계 안에 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창조가 의미하는 원래 만들어진 세상의 상황 그리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우리의 미학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학 상의 전개는 원래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재확인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처음에 죄로 인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선한 창조를 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도록 만드시고 그 안에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은 그와 언약을 가진,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아름답게 개혁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선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떠나서는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원초적 죄의 뿌리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성령의 조명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일을 생각할 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의 능력을 초월”하여 위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는 인간 세계를 행복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 안에는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들려주는 다양한 이론적 또는 실천적 지식들로 가득하다.

특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들려지는 창1:28 말씀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문화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문화소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변혁시킴으로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부이기도 하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하고 질서 있는 삶을 선사하기 위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이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단순한 존재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고 반영하며 올려 퍼지게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